

미국의 대학평가인정기준에 나타나는 대학도서관 평가기준의 최근 경향*

Recent Trends of the Assessment of Academic Library Services in the Context of American Regional Accreditation Standards

서혜란(Hye-Ran Suh)**

초 록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체제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2000년을 전후하여 대폭적으로 개정된 여섯 개 지역별 대학평가인정기준을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섯 가지 특징적 변화 경향을 파악하였다. 즉 목적 기반의 평가, 성과 중심의 정성적 평가, 학생의 학습성과 강조, 도서관의 가르치는 역할 강조, 원격교육 서비스 강화, 그리고 규범성과 구체성의 후퇴가 그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최신 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학평가기준 중 도서관 관련 평가항목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merican Academic Accreditation System was reviewed. Current accreditation standards of the six regional accreditation associations were analysed with reference to the evaluation of academic libraries. That analysis was led to the recognition of some trends; mission and goal based assessment, qualitative evaluation, emphasis on the student learning outcomes, emphasis on the teaching role of academic librarians, distance education, and less prescriptive text. Some suggestions were made for revision of the Korean academic accreditation standards related to libraries.

키워드: 대학도서관, 대학평가인정제, 평가기준, 성과평가, 미국지역평가인정협의회
Academic Libraries, Accreditation, Evaluation Standards, Outcomes Assessment, American
Regional Accreditation Association

* 이 연구는 2004학년도 신라대학교 연구비로 이루어 졌음.

** 신라대학교 정보관리학부 문헌정보학과 교수(hrsuh@silla.ac.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12월 6일 논문심사일자 2004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12월 18일

1.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학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세기부터 지속된 대학교육의 대중화, 학문영역의 세분화와 통합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의 혁신 같은 요인들이 그런 변화를 주도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위와 같은 범세계적 경향에다가 대학입학 적령인구의 감소, 교육시장 개방,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 전환, 재정적 어려움 같은 국내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교육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대학이 교육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대학도서관의 중요성과 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평가 문제는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을 막론하고 꾸준히 발전과 혁신의 과정을 겪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육협회가 주도하는 대학평가사업이 대학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각 대학은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얻는 것에 대학의 명운을 걸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4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이 제도가 어느새 제2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제 어느 정도 정착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제도는 대학도서관의 내실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질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평가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이 제도의 실시 초기에 대학도서관 관련 평가 기준의 문제점이 대학도서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제기되었고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2기 평가에 들어선 현 단계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도서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연구와 실천의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평가인정제의 종주국으로서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더구나 미국의 여섯 개 지역평가인정기구들은 2000년을 전후하여 평가인정의 잣대가 되는 평가인정기준 문서들의 내용과 체계를 대폭적으로 혁신한 바 있다. 평가지표와 평가기법의 발전은 당연하게도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처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혁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원인을 분석하며,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대학도서관 평가 문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적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미국의 경우, 대학평가인정제도와 관련된 대

학도서관 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대학 전체의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기관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경우이다. 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구는 다시 비영리 학위수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여섯 개 지역평가인정협의회와 영리기관과 비학위수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평가인정협의회로 나누어진다. 둘째는 각종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문평가인정협의회가 실시하는 전문분야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그리고 셋째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인가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는(그 책임의 범위와 정도는 각 주에 따라 다양하다) 주 차원에서의 평가와 관련되는 경우이다.

이 연구는 그 가운데서 지역평가인정협의회가 비영리 학위수여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별 기관평가에서 사용하는 평가인정기준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범위를 그렇게 설정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성을 가지는 잣대를 제공해주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인정을 수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 여섯 개 지역평가인정협의회, 즉 Middle State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이하 MSCHE),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Commission o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이하 NEASC, CIHE),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The Higher Learning Commission(이하 NCACS, HLC), Northwest Commission on Colleges and Universities(이하 NWCCU),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Commission on Colleges(이하 SACS, CC),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Commission for Se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이하 WASC, CSCU)의 대학평가인정제도를 개관하고, 각각의 평가기준문서를 분석하여 최근의 평가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이번 논문에서 얻어진 분석 결과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인정제의 평가기준 중 대학도서관 관련 기준과 연계시켜 분석함으로써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에서 밝힌다.

2. 미국 대학평가인정제의 개관

2.1 개념과 목적

미국은 대학교육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자유방임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주정부가 대학의 설립과 인가에 대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책임과 권한의 범위와 정도는 각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되면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전국에 삼천 개가 넘게 설립

되어 있는 고등교육기관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간의 질적 격차를 줄이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는 1890년대를 전후로 대동하여 20세기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학문의 자유 보장, 실용주의 같은 미국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학평가인정제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대학의 자체평가와 동료들의 현장방문평가를 통해 대학사회 스스로가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그 후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의 성격은 조금씩 변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74년부터 평가인정의 결과가 연방정부의 지원금과 공공자금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자격 판정의 근거로 사용되게 되면서 대학평가인정기구들은 사적이고 임의단체적 성격에서 공적이고 공공단체적 성격으로 바뀌었다(Harclerod 1980). 그렇더라도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의 기본적 성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즉 대학평가인정제란 어떤 대학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성취수준과 품질이 동료집단으로 구성된 평가인정기구가 설정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인정기구 회원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특징은 대학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동료평가(peer review)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 또는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 평가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고등교

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보장받는 것이며, 그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그들 간의 우열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다.

대학평가인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고등교육기관과 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품질을 보장하고 그것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이성호 1987). 첫째, 고등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유지·향상시킨다. 둘째, 각 대학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교육목적과 목표·교육프로그램의 시행·교육효과의 성취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셋째, 부당한 내·외부 압력에서 대학을 보호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대학이 부실한 대학의 잠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넷째, 학생·학부모·일반대중들로부터 대학의 교육품질에 대한 신뢰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미국에서 대학평가인정제는 학생, 학부모, 정부, 언론 등이 대학과 그 교육프로그램의 품질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실용적 용도로 활용된다. 첫째,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주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여를 받으려는 학생은 반드시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에 적을 두어야 한다. 둘째, 고용주는 신입직원의 채용, 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 또는 대학에 기부를 할 때 평가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연방정부는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각종 연방자금을 지원한다. 넷째, 주정부 역시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에게

만 각종 자금지원을 하며 그 대학의 졸업생에게만 특정 전문분야의 자격시험 응시권한을 부여한다(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n. d.]).

2. 2 제도와 절차

미국에서 실시되는 대학평가인정제는 평가 대상에 따라 기관평가(institutional accreditation)와 전문분야평가(specialized accreditation)로 나누어진다. 기관평가는 일반평가(general accreditation)라고도 하며, 대학 전체를 하나의 단위기관으로 보아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전문분야평가는 프로그램 평가(programmatic accreditation)라고도 하며, 대학 내의 특정한 단위기관, 단과대학과 대학원, 학과, 교육프로그램을 평가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기관평가는 어떤 대학이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들로 구성되는 평가인정기구의 회원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서, 전문분야평가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학과의 졸업생이 해당 전문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받아들여질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둔다.

모든 평가는 각종 평가인정기구가 주관하며,

그 평가인정기구들은 연방정부기관인 교육부(Dept. of Education)와 비정부기구인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CHE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평가는 평가대상 대학의 성격에 따라 지역평가인정협의회 또는 전국평가인정협의회가 수행하며, 전문분야평가는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등 각 분야별 전문평가인정협의회가 수행한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2는 미국의 각종 유형의 대학평가인정기구 가운데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섯 개 지역별 대학평가인정협의회의 개요를 요약한 것이다.

여섯 개 협의회는 각기 고유한 정책과 규정 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대학평가인정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은 대학평가인정과정을 간단한 도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①대학평가인정협의회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는 참여기관의 대표로 구성된다.

②대학평가인정의 판정은 기준에 의거하여

(표 1) 미국의 대학평가인정기관의 유형

종 류	성 격	
기관평가	지역평가인정협의회	6개의 지역별 협의회 대부분(98% 이상) 비영리 학위수여기관 대상
	전국평가인정협의회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8개 존재 주로 영리기관(79.5%), 비학위수여기관(65.1%) 대상
전문분야평가	전문평가인정협의회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70여개 존재 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 대상

(표 2) 지역별 대학평가인정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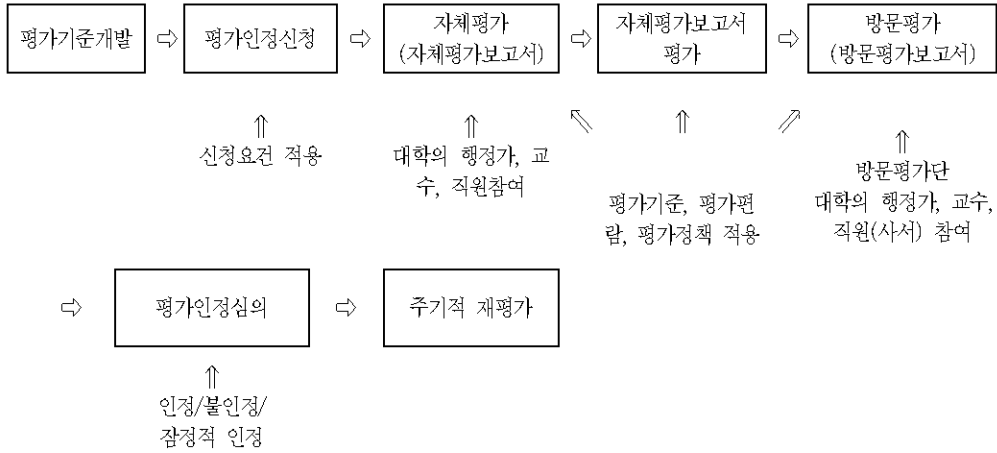
협의회명	대상지역	설립년도	대학평가 시작년도	기준문서
NEASC. CIHE	뉴잉글랜드지역 6개주	1885	1952	Standards for Accreditation. 1992;2001 개정 Draft Standards for Accreditation. 2005.(예정)
MSCHE	중부 5개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지니아군도	1887	1921	Characteristics of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2002.
NCACS. HLC	북중부 19개주	1895	1910	Criteria for Accreditation and Operational Indicators. 2003.
SACS. CC	남부 11개주	1895	1917	Principles of Accreditation. 2001.
NWCCU	북서부 7개주	1917	1921	Standards. 1999.
WASC. CSCU	캘리포니아, 하와이, 태평양 연안	1924	1949	Handbook of Accreditation. 2001.

- 인정과 불인정으로 나누며, 대학간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 ③ 대학평가인정협의회는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과 교육프로그램의 명단을 공개한다.
 - ④ 대학평가인정을 신청하는 대학은 먼저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청자격요건(eligibility requirements)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⑤ 대학평가인정을 신청하는 대학은 대학의 행정가, 교수, 직원이 참여하여 기준을 근거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⑥ 대학평가인정협의회는 협의회가 설정한 평가기준, 평가편람, 평가정책에 따라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⑦ 회원대학의 행정가, 교수, 직원으로 구성되는 방문평가단은 평가신청대학을 방문하여 실사를 하고 방문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 ⑧ 대학평가인정협의회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인정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 ⑨ 평가인정 판정에 불복하는 대학은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 ⑩ 평가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평가인정주기는 대체로 5년에서 10년이다.

3. 평가인정기준의 분석

미국의 각 지역별 협의회는 평가인정을 신청한 대학들이 회원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으로서의 평가인정기준을 수록한 문서의 내용과 구성은 물론 평가인정기구마다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모든 기준들은 거의 한 세기에 이르는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대학평가방법론의 발전과 고등교육



(그림 1) 대학평가인정과정

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에 발맞추면서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재의 기준들은 모두 2000년도를 전후로 대폭 개정된 바 있다. NEASC, CIHE는 2005년에 또한 차례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인터넷상에 공개한 가운데 현재 광범위하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대학평가인정에 적용되고 있는 여섯 개 기준문서의 전반적 경향을 대학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평가인정기준들이 예외 없이 목적기반 평가모형(goal-based assessment model)을 강조하고 있다. 즉 대학의 모든 단위기관들과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는 대학의 사명과 목적의 달성을 지원하는데 맞춰져야 하며 대학 평가는 그런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대학이 설정하고 있는 고유한 사명과 그것의 달성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대학의 다양성을 인정하

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른 말로 하면 평가인정 기구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여 서열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문서에서는 평가인정을 신청한 대학이 기준의 달성 정도를 증명하는 방법이나 평가단이 그것을 평가하는 척도를 상세히 규정하기 보다는 각 대학마다 자체의 사명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기준을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에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사 례)

“도서관과 정보자원의 일차적 목표는 대학의 사명과 목적에 부합되고 그것을 지지하는 방향에서 교수,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NWCCU 1999, 기준 5.A)

“대학은 교수와 학습, 학술 활동과 창작 활동, 그리고 학습 지원이라는 핵심기능을 통해 대학의 목적을 성취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한다. 이러한 핵심기능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교육의 효과성을 이룩하려는 대학의 노력 속에서 상호 지원

되어야 한다. ... 학습과 학생의 성취도에 대한 대학의 기대가 대학의 학사프로그램과 정책에 명백히 반영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 도서관 및 정보 자원의 활용이 포함된다.”(WASC, CSCU 2001, 기준 2와 2.3).

둘째, 각 대학이 평가인정을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을 제시해주는 평가인정기준은 초기에는 정량적 기준의 성격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성적 기준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Williams and O'Connor 1994). 이는 1990년대 이후 고등교육의 품질을 평가할 때 대학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투입(input) 요건을 증시하는데서 벗어나서 교육프로그램의 성과(outcomes)를 중요한 지표로 삼고자 하는 경향과 맥락이 닿아있다.

사실 미국의 경우 평가인정기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성과에 의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그렇지만 주립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립대학교들로 구성된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대학 연합체인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versities and Land-Grant Colleges(NASULGC)가 1997년도에 평가인정협의회들이 평가에서 상세한 투입 자료를 요구하는 행태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던 사례(NASULGC 1997)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로는 투입에 의존하는 기존의 평가체제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사정은 도서관평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Wolff(1994)는 지역별 평가인정협의회가 모두 도서관 장서규모, 직원수와 예산 같은 투입 요소를 강조할 뿐 학생과

교수의 학습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된 도서관의 진정한 역할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비판한 바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성과 자체의 속성 때문이다. 도서관서비스의 경우 성과는 “도서관이용자가 도서관의 자원과 프로그램을 접촉한 결과 변화한 것”으로 정의된다. 도서관 이용을 통한 학생들의 성적 향상, 캐리어 개발, 도서관이용교육을 통한 정보활용능력의 향상, 도서관 사서와의 협력연구를 통한 교수진의 도서관 인식 등을 대학도서관에서 중요한 성과의 사례로 들 수 있다(ACRL 1998). 결국 대학 또는 도서관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쉽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인정기구는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투입관련 데이터와 함께 산출(output) 데이터를 추가하였다. 예컨대 도서관이용 데이터나 졸업비용 같은 산출 데이터가 대학의 성과를 표시해주는 대용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산출은 대학의 효율성이나 운영의 효과성을 증명해 줄 뿐이며 대학의 성과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Ratteray 2002, 369).

2000년을 전후로 해서 개정된 최근의 평가인정기준 역시 성과중심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지향하는 경향은 뚜렷하지만 여전히 투입 데이터와 산출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사 례)

“대학은 교수, 연구 및 서비스라는 대학의 사명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시설, 서비스 및 학습/정보 자원을 제공한다.”(SACS, CC, 2002, 기준 8.1)

“대학은 대학의 사명 완수를 위해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직원, 즉 도서관 및/혹은 기타 학습/정보자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거나 경험을 가진 직원을 제공한다.”(SACS, CC, 2002, 기준 8.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도서관서비스 전반 또는 도서관이 수행하는 개별적 서비스의 품질과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체기관인 대학의 목적 달성에 어떤 공헌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ACRL 1998).

(사 례)

“대학은 학습과 교수지원을 위해 학습자원[예컨대 도서관]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NCACS, HLC 2003, 기준 3D)

셋째, 학생의 학습 성과(student learning outcomes)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섯 개 평가인정기준들 모두 학생의 학습과 대학의 효과성 개선이야말로 대학평가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연방정부 교육부이다. 교육부는 1987년에 연방교육기금의 효과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가인정기구들로 하여금 문서화가 가능한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를 더 중시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Williams and O'Connor 1994). 그리고 1998년에 개정된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제4장에서는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는 대학은 반드시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는 성과평가계획(out-

come assessment plan)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서 모든 평가인정기준들이 대학 전체 또는 대학의 모든 단위기관과 프로그램별로 평가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사 례)

“도서관과 정보지원의 계획 활동은 학생과 교수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교수와 학습기능을 지원한다. 관련된 평가과정을 통해 도서관과 기타 정보자원보관소, 그리고 그 서비스의 품질, 접근성, 활용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교육프로그램 지원의 효과성 정도를 결정한다.”(NWCCU 1999, 기준 5.E)

“대학은 도서관 및 정보자원과 서비스의 품질, 적절성 및 활용성을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대학은 평가 결과를 이들 자원의 효과성 개선에 이용한다.”(NEASC, CIHE 2001, 기준 7.6)

모든 평가인정기준에서 학생의 학습 성과를 도서관과 정보자원, 정보기술의 활용에 연계시키고 있으며, 일부 기준에서는 교수계획서에 도서관 활용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정보를 활용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사 례)

“대학의 교과과정은 학문적 내용, 엄밀성, 일관성 면에서 고등교육의 사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대학은 교과과정에 대해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해서 학생의 학습목적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요건으로서 다음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적합한 학습자 원, 시설, 교육기기, 도서관 서비스 및 전문직 사서
 - 학생의 정보와 학습자원 활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 [이를 위한 선택요건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교수계획서 또는 교수와 학습 방법에 합당한 다른 자료에서 학생의 정보활용기술에 대한 기대치를 기술함으로써 교과과정에 정보활용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MSCHE 2002, 기준 11)

넷째, 도서관의 가르치는 역할(teaching role)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은 대학도서관의 가르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새삼스럽게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교육 분야에 미친 정보기술의 영향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생의 학습 성과를 중요시하는 최근의 평가인정기준의 경향과 관련된다.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도서관이용교육과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보활용능력이란 자기 스스로 정보에 접근하여 평가를 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이해와 관련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모든 기준문서에서 정보활용능력교육 또는 도서관이용교육을 통한 도서관의 가르치는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MSCHE의 기준문서에서는 정보활용능력의 교육을 교양교육의 필수과정으로 정의하고 전

문직사서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MSCHE 2002, 38).

(사 례)

“대학은 이용자들이 도서관과 기타 학습/정보 자원의 이용지도를 정기적으로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SACS, CC 2001, 26)

사서들은 교수진과 협력하여 정보활용능력을 가르치고 평가함으로써 대학이 제공하는 학사프로그램의 콘텐츠 강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Gratch Lindauer 2002, 19). 그에 따라 미국에서 도서관의 가르치는 역할 강화는 필연적으로 사서의 교수자격 부여와 평가 팀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사 례)

“대학의 교과과정은 학문적 내용, 엄밀성, 일관성 면에서 고등교육의 사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대학은 교과과정에 대해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해서 학생의 학습목적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요건으로서 다음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교과과정과 관련된 정보활용기술을 가르치고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전문직 사서와 교수간의 협력”(MSCHE 2002, 기준 11)

다섯째, 정보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킨 원격교육 또는 전자교육이 늘어남에 따라 평가인정기준에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에 대한 평가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은 그 교육의 수강생들이 출석교육

수강생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서관과 학습자원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사 례)

“원격교육의 경우에 적합한 학습자원(예를 들면 도서관 또는 다른 정보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MSCHE 2002, 기준 13)

“대학은 범위, 품질, 최신성, 그리고 종류 면에서 개설된 학사프로그램과 구성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정보자원을 소유하거나 접근체계를 해야 한다. 통학학생과 원격교육에 등록한 학생 모두에게 물적 자원과 정보자원, 서비스, 그리고 정보기술 시설이 범위와 종류 면에서 개설되는 교육의 수준과 유형을 지원하고 유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들 자원, 서비스 및 시설은 대학의 목표에 일치해야 하며 적절하고 충분하고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WASC, CSCU 2001, 기준 3.6)

여섯째, 대학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기준의 구별성과 구체성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지역별 평가인정기준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평가인정기준에서 대학도서관의 자원과 서비스를 독립적 항목으로 설정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가인정기준문서 여섯 개 중에서 NCACS, HLC의 기준을 제외하고 다섯 개 기준문서에 모두 도서관과 학습자원에 대한 기준이 독립된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지금은 세 개로 줄어들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도서관과 학습자

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약화로 받아들여서 평가인정기준에서 대학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지면 대학운영자들이 장서, 직원과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투자의 수준을 줄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형식면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항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용면에서는 대학의 필수적 기능인 교수 및 연구에 대한 평가에 통합적으로 연계됨으로써 투입을 기준으로 한 평가를 지양하고 명실상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진일보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한편, 평가인정을 처음 신청하는 대학들은 우선 기본적인 신청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지역별 협회회의 신청자격요건은 대학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투입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 례)

“성적, 범위 및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충분한 학습자원과 정보자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MSCHE 2002, xiii)

“대학은 ... 학생과 교수에게 학위과정에 알맞은 도서관 장서를 비롯한 학습/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권과 이용자 특권을 제공·지원해야 한다. 이들 장서와 정보자원은 대학의 모든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에 충분해야 한다.”(SACS, CC 2001, 17)

(표 3) 지역별 평가인정기준의 구성

NEASC. CIHE	MSCHE	NCA. HLC	SACS. CC	NWA. CCU	WASC. CSCU
1.사명과 목적	1.사명, 목적과 목표	1.사명과 윤리	1.대학의 사명	1.대학의 사명과	1.대학의 목적설정
2.계획과 평가	2.계획, 자원분배,	2.미래에 대한 준비	2.거버넌스와 운영	2.목표, 계획과	2.교육목표의 보
3.조직과 거버넌스	대학혁신	3.학습과 효과적 교수	3.대학의 효과성	3.효과성	3.장
4.교육과정과 교육	3.대학의 자원	4.지식의 수집,	4.교육프로그램:전체	2.교육프로그램과	2.핵심기능을 통한
5.교수	4.리더십과 거버넌스	발견과 응용	5.교육프로그램:학부	3.효과성	3.교육목표의 달성
6.학생서비스	5.행정	5.참여와 서비스	6.교육프로그램:대학원 및 전문	3.학생	3.지속가능성 보장
7.도서관과 정보자원	6.윤리		교육 프로그램	4.교수	4.을 위한 자원 및
8.시설 설비	7.기관평가		7.교수	5.도서관과 정보자원	5.조직구조의 개발
9.재정	8.입학허가		8.도서관과 기타	6.거버넌스와 행정	6.과 적용
10.홍보	9.학생지원서비스		9.학습자원	7.재정	7.4.학습과 개선을
11.윤리	10.교수		10.재정과 시설자원	8.시설 설비	8.지향하는 조직
	11.교과과정			9.윤리	9.만들기
	12.교양교육				
	13.연계교육활동				
	14.학습평가				

다만 WASC. CSCU(2004, 6)는 학생 대상의 정보활용능력 교육프로그램의 개설과 함께 도서관 이용이 교과과정의 기본적 구성요소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을 신청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예외적이다.

4. 결 론

대학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방식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허가제(chartering)와 독일, 일본, 한국 등의 정부통제 방식, 그리고 미국에서 발전한 대학평가인정제(accreditation)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학평가인정제는 가장 늦게 발전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미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제도였지만 지난 10 여 년 전부터 한국, 일본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최금진

2003, 261-262).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미국적 특성을 가진 대학평가인정제를 받아들인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갖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 같다.

미국에서는 2000년을 전후해서 모든 지역별 평가인정협의회가 평가인정기준을 대폭적으로 개정하는 변혁을 시도하였다. 그 배경에는 대학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과평가의 본격적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의 혁신을 꾀하려는 미국정부의 교육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학평가에 있어서의 이러한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얼마나 거둘 것인지는 아직 평가하기가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미국의 대학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대학

도서관도 물론 포함된다.

대학이 교육과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서관의 중요성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서관이 대학평가인정기준과 평가인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필수적 부분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도서관의 평가기준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대학도서관과 관련해서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인정기준의 변화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투입 중심의 정량적 도서관평가기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투입을 기준으로 하는 정량적 기준은 기준 적용이 쉽고 비교적 명확하며 객관적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도서관에 대한 기본투자가 아직 부족한 단계에서는 도서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도서관의 장서수, 좌석수 같은 정량적 투입요소가 도서관의 효과성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와 자원의 품질을 보장하는데 실패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Ebbinghouse 1999).

둘째, 대학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교수와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학습 성과와 도서관을 연계시키는 평가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도서관이 제공하는 자원과 서비스가 교육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의 개발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하여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었지

만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나 척도가 많이 개발되지는 못했다(Gratch Lindauer 1998). 그렇지만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서관 및 정보자원의 이용과 학습 환경 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 평가방법이 개발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지어서 대학도서관의 정보활용능력교육과 도서관이용교육의 강화와 그에 따른 사서의 가르치는 기능을 강조하는 평가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교육에서 학습성과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서 정보활용능력교육과 도서관이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입학자들이 대학 입학 이전에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상당히 적다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교양교육에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확산되고 있는 원격교육과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강좌를 수강하는 모든 이용자들도 출석수업을 받는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도서관 평가기준과 연계되어 모색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서관 관련 평가를 포함해서 대학평가인정제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라고 본다. 평가인정제의 의미가 결코 대학간의 우열을 가려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제시된 기준을 근거로 한 대학의 자체평가를 통해 밝혀지는 강점과 약점을 대학발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대내적 및 대외적 경쟁력을 갖추고 대

학이 설정한 사명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데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의 재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평가를 받는 입장인 대학 및 그 구성원은 물론이고 평가를 주도하는 대학교육협의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평가인정제가 엄청

난 서류업무를 수반하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 대학의 실질적 발전을 이끄는 구동력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된 평가인정기준의 설정이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참 고 문 헌

- 이성호. 1987. 『한국대학평가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최금진. 2003. 대학평가인정제의 역사적 발전과정 고찰. 『연세교육연구』, 16(1): 261-277.
- 최금진. 2004. 주요국의 대학평가체제 비교 분석. 『연세교육연구』, 17(1): 113-138.
- ACRL. Task Force on Academic Library Outcomes Assessment. 1998. Report. [cited 2004. 10. 15] <<http://www.ala.org/ala/acrl/acrlpubs/whitepapers/taskforceacademic.htm>>
-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n. d.] Informing the Public About Accreditation. [cited 2004. 10. 15] <http://www.chea.org/public_info/index.asp>
- Ebbinghouse, Carol. 1999. Library Standards: Evidence of Library Effectiveness and Accreditation. *Searcher*, 7(8): 20-28.
- Gratch Lindauer, Bonnie. 1998. Defining and Measuring the Library's Impact on Campuswide Outcom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9(6): 546-570.
- Gratch Lindauer, Bonnie. 2002. Comparing the Regional Accreditation Standards: Outcomes Assessment and Other Trend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8(1): 14-25.
- Harclerod, Fred F. 1980. Accreditation: History, Process and Problems.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 Hernon, Peter and Dugan, Robert E. 2002. An Action Plan for Outcomes Assessment in Your Librar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MSCHE. 2002. Characteristics of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Accreditation. [cited 2004. 10. 11]

- <http://www.msache.org/msache/content/pdf_files/characteristicsbook.pdf>
- NASULGC. 1997. NASULGC Board Approved Resolution on Accreditation. NASULGC Newslines, 6(10): 8.
- NCACS. HLC. 2003a. The Criteria for Accreditation and the Operational Indicators. [cited 2004, 10, 11] <<http://www.ncahigherlearningcommission.org/restructuring/newcriteria/NewCriteria.pdf>>
- NCACS. HLC. 2003b. Handbook of Accreditation. 3rd ed. [cited 2004, 10, 11] <<http://www.ncahigherlearningcommission.org/resources/handbook/Handbook03.pdf>>
- NEASC. CIHE. 2001. Standards for Accreditation. [cited 2004, 10, 11] <<http://www.neasc.org/standards.pdf>>
- NEASC. CIHE. 2004. Draft Standards for Accreditation. [cited 2004, 10, 11] <http://www.neasc.org/cihe/revisions/standards__revision.htm>
- NWCCU. 1999. Standards. [cited 2004, 10, 11] <<http://www.nwccu.org/policyprocedures/standards.html>>
- Nelson, William N. 2004. Library Standards in Higher Education: an Overview,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ited 2004, 10, 19] <<http://www.dekker.com/servlet/DOI/101081EELIS120021360>>
- Nelson, William Neal and Fernekes, Robert W. 2002. Standards and Assessment for Academic Libraries: a Workbook. Chicago: ACRL.
- Ratteray, Oswald M. 2002. Information Literacy in Self-Study and Accreditation.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8(6): 368-375.
- SACS. CC. 2001. Principles of Accreditation: Foundation for Quality Enhancement. [cited 2004, 10, 11] <<http://www.sacscoc.org/pdf/PrinciplesOfAccreditation.pdf>>
- WASC. CSCU. 2001. Handbook of Accreditation. [cited 2004, 10, 11] <<http://www.wascweb.org/senior/handbook.pdf>>
- WASC. CSCU. 2004. How to Become Accredited: Procedures Manual on Eligibility, Candidacy and Initial Accreditation. [cited 2004, 10, 11] <<http://www.wascweb.org/senior/HowtoBecomeAccreditedNov04CommAppr.pdf>>
- Williams, Delmus E. and O'Connor, Phyllis. 1994. Academic Libraries and the Literature of Accreditation. in Garten, Edward D. ed. The Challenge and Practice of Academic Accreditation: a Sourcebook for

Library Administrator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43-249.
Wolff, Ralph A. 1994. Rethinking Library
Self Studies and Accreditation Visits.
in Garten, Edward D. ed. The

Challenge and Practice of Academic
Accreditation: a Sourcebook for
Library Administrator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25-138.